

“일·가정 양립 실천하자”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여성단체협, 장학금 100만원 전달

제22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무주군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무주읍 전통문화회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외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여성·남성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록색 손수건을 가슴에 올린 후 '일, 가정 양립은 양성평등 첫 걸음, 하나되는 양성평등 두배되는 행복세상, 함께 하는 성평등 행복한 무주군,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계 속의 무주군'을 외치며 실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무주지구협의회 김을희씨(71세)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무주군지회 김영순씨(68세)가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군농가주부모임 한분님씨(59세)가 무주군의회의장 표창을, 전북일보 김효종 기자(50세)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황정수 군수는 격려사에서 "양성평등은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 생 각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퍼져나가

기를 바라면서 군에서도 나서 양성평 등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양성평등이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새단장 마쳐

진안군은 부귀면 봉암리 편백숲 산림욕장이 전복의 대표 힐링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지난해 7월 마무리된 부귀 편백 숲 산림욕장은 그동안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진입에 불편을 겪었으나 미곡선 도로 1.1km 구간 확장 공사 완료로 승용차 접근이 편리해졌다.

또한 진입 도로변에 느티나무 200주, 모감주 180주 등 가로수 식재와 임도 보수, 등산로 2km 정비, 이정표 설치 등 보완공사를

모두 마치고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진안고원에 조성된 산림욕장은 승용차로 전주에서 20분밖에 소요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데, 주 수중이 편안한 휴식과 심신의 안정에 좋다는 피톤치드를 강하게 내뿜는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완주 상관, 건지산, 모악산 과 함께 전복을 대표하는 힐링 숲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반딧불축제 홍보행사 중

무주군과 농협이 공동주관하는 무주농산물 및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행사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농협전주유통 및 농협대전유통에서 개최된다.

무주 농산물·반딧불 축제홍보 행사에 황정수 무주군수, 곽동열 무주농협조합장, 양승욱 구천동농협조합장, 이정환 무주군지부장, 이영철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인 복숭아, 옥수수, 토마토, 표고버섯, 블루베리 등을 직접 홍보 및 판매하고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무주 우수 농산물의 판매 및 새로운 판매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귀면 애플수박 출하 시작... 고소득 기대

6농가 20동 재배... 큰 수박의 200% 소득 2억원 예상

진안군 부귀면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형 애플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미니수박 수요가 늘고 있어 애플수박이 부귀면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올랐다.

큰 수박의 7~8배 정도 작은 애플수박은 무게가 850g부터 1~1.5kg정도이며 속이 처면 출하되는 것으로 부귀 애플수박은 지난주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특히 애플수박 1주에서 8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수확이 가능해 재배 기술력에 따라서는 큰 수박보다 최고 200%정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해발 400m 진안고원에서 자란 애플수박은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짜가 먹을 수 있다. 또 아삭한 식감과 수박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부귀면 애플수박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6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유니크 파트너와 전량 계약재배하고 있다.

올해 부귀면은 비닐하우스 20동(6,600㎡)에서 2억 여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을 75%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임재배를 접목하면서 생산비도 대폭 낮추고 있다.

진안군에 처음으로 애플수박을 도입한 한농연 김한국 회장은 "한포기에 12과를 착과할 수 있는 애플수박이



진안군 부귀면에서 재배하는 애플수박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농업경영인협,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한국농업경영인장수군연합회는 27일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새달라며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장수군연합회는 회원이 500여명에 달하며 농업인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최홍립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들로 모아진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수군은 "기탁한 성금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수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우리 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민태권도복합기운동추진본부 190만원 무주군장학재단에 기탁

무주군은 27일 군민태권도복합기운동추진본부가 장학금 190여만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태권도복합기운동추진본부가 장학금 190여만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태권도복합기운동추진본부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민태권도복합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복(태권도티셔츠)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것을 판매한 수익금을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하게 된 것.

김용봉 본부장은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2017 무주대회 성공에 일조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 태권도원의 성지화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얻은 결실을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더 큰 일에 사용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군 관광협의회 맹갑삼 회장, 무주군태권도육성추진위원회 김남호 회장,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참가자 신청접수 7월 26일~9월 8일까지

장수군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의 참가 신청을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참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www.jangsubestival.com)에서 접수가능하며, 장수군 민원과, 읍·면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심은 9월 15일 오후 2시 한누리전

당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본선에 출전할 1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가요제 최우수상에는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 인기상 2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금척 디자인개발·지식재산권 등록' 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27일 '금척 디자인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 용역 중간보고회를 이항로 군수,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금척 디자인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 용역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품속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신인에게서 하사받은 장소가 진안

마이산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금척의 브랜드화와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용역업체에서 개발한 금척의 저작물 시안과 제품 아이템 시안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